

계룡면, 다문화 행복모임 "다식 만들기" 체험

공주시 계룡면은 지난 19일 계룡면 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가족 15명을 대상으로 "다식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을 맞아 전통 한과인 다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참가자들이 손수 음식을 만들며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체험은 계룡면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비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강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 2시간 동안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전은혜 계룡면 다문화가족협의회장은 "다식을 직접 손으로 만들며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은원 계룡면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에 이번 체험이 잠시나마 휴식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간 화합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강투데이] 공주시 계룡면, 다문화 행복모임 "다식 만들...

[충청메시지] 공주시 계룡면, 다문화 행복모임 "다식 만들...

[특급뉴스] 공주시 계룡면, 다문화 행복모임 "다식 만들...